

# 김해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현황과 과제

오재현(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

ismo2263@naver.com

## 1. 들어가며

사회적경제란 말을 풀어보면, ‘사회와 관계된 경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라는 단어의 조합이 모순적으로 들리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회문제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불균형,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실업, 이주민 증가와 같은 사회적 관점의 문제들을 경제적인 논리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와 연결시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합니다. 경기침체의 체감도가 더해지면 더 해질수록, 서민들의 삶이 어렵고 궁핍해 질수록 부각되는 대안경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동체적 삶(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소유’가 아닌 ‘공유’하고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거나 대체가능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아닌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듬어 가기 위한 ‘대안경제’로 불리어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화하고 따뜻하며,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개인의 이윤추구’ 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들’로 끝나는 휴머니즘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냄새에 찌들어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사람냄새 풀풀 나는 ‘사회적 경제’를 함께 해보자고 소리 높여 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2.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경남지역에는 총 726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126개, 사회적협동조합 34개, 일반협동조합 389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 마을기업 99개, 자활기업 77개로 일반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실적과 뚜렷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인전환 후 예비 또는 인증과정을 거쳐 진입해야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운영방식 면에서 영리법인의 성격과 유사해 거부감이 덜하다는 장점과 함께 다양한 세제혜택이나 특례보증, 우선구매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전에 확보 할 수 있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다양한 아이템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던 자활기업들은 최근 2년간 정부시책의 변화와 신규 사업아이템 부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창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법인 설립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협동조합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고민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과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2년 12월)’의 경우 많은 예산을 수반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을 이루어 왔다면, 최근 개정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계획(2013년도 7월)’의 내용은 그동안 양적성장에 치우쳐 온 사회적기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 운영과 성장가능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육성정책(컨설팅, 시스템 개선 등)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수적 증가에 비해 적정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원 횟수를 줄이거나 예산에 맞게끔 배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2017년 5월말 현재)

총 계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726	126	424	1	99	77	.

구 분	계	인증 SE	예비 SE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소계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경제기업	726	79	47	99	77	424	389	34	1
광역 네트워크	6	1	.	1	3	1	1	.	.
민간 협의체	광역	4	1	.	1	1	1	.	.
	기초	8	3	.	1	4	4	.	.
관련 조례	광역	3	1	.	1	1	1	.	.
	기초	42	18	.	1	13	10	.	.

※ 광역단위 중간지원 조직의 집계 현황과 시기가 다소 상이하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총 11,508개(일반협동조합 10,761개, 사회적협동조합 689개, 협동조합연합회 5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년간 약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창출 부분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협동조합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며, 2016년 4월 28일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지역에는 2017년 5월 현재 총 87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 13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 일반협동조합 59개, 마을기업 2개, 자활기업 9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 2010년도를 기점으로 예비 또는 인증으로 진입하여 연간 1~2개소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80%이상이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비중은 약 67%로 눈에 띄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의 경우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상주하는 인력 없이 구색만 갖추어 협동조합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짐작컨대 협동조합의 수 적인 증가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수가 동일하게 비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동조합(일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나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생소함에서 비롯된 내부적인 갈등과 행정실무자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의 고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지역의 생태계

※ 별첨. 김해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참조.

김해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장세가 매우 둔감하게 유지만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10년을 기점으로 인증 받은 1세대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를 포함하여 5년이 지난 현재, 총 13개(예비 6개소, 인증 7개소)의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수 적인 증가만 보았을 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감소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지원여건이 다양한 광역시로 본점을 이전한 1개소, 인증포기 1개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1개소(8년차)로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5년을 기점으로 자생력(재정건전성, 판로개척 등)을 잃고 도산하는 경우보다는 설립이후 짧게는 (예비)단계에서 길게는 사업을 확장하고 유지되는 8년 이후 시점에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거나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업무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예비)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온 선배 기업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교훈들은 가장 유연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매뉴얼이며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김해지역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당사자 조직들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는 2015년 11월 설립된 ‘김해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전부이며, 2016년 상반기까지 ‘경남사회적금융컨퍼런스’, ‘공유경제 포럼(시민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김해사회적경제 간담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넘나들며 당사자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려 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과 사무국 구성(인적자원 및 운용예산 등)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과정에서 깨우치는 한 가지 교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체단체 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초현황 조사와 연구(학문적, 지역적 특성)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칭)김해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위 통합지원기관, 광역단위 당사자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50년을 위한 5년의 ‘뿌리내림’을 기꺼이 감당하는 1)퀀텀리프,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사업에 연연하기 보다는 법인기업의 체계를 갖춰가며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도시재생, 문화다양성 등)’ 참여, 그리고 ‘협동을 위한 협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내기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조직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역단위 당사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남협동조합협의회는 소극적인 조직화 사업 추진, 무분별한 사업과 인력의 혼재로 인하여 사실상 협의회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되기는 어려운 상황(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도 대동소이함)이라 판단됩니다. 2017년 2월, 경남협동조합협의회는 제4차 정기총회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

1) 퀀텀리프(quantum leap)란? 양자도약, 즉 원자 등의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그 속도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는 회원들의 자격을 정지(총회 의결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기초 지자체 단단위로 구성된 창원·양산시 협의회 회원 45개소를 주축으로 의결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이 마비되다시피한 지금의 상황에서 통합지원기관에 의지하며 네트워크를 연명하고 있는 광역단위 협의회 조직들은 여전히도 ‘그들만의 리그’로 방관하고 있는 관과의 구부러진 관계유지와 무관심으로 일관된 당사자들의 곁에서 오늘도, 내일도 생존하기 위한 고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조직들의 인식개선(네트워크의 필요성, 역할과 기능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으나, 조직을 대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협의회’의 명분은 결코 말이 아닌 실천(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때, 그때가 지금이 아닐는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많은 협동조합의 우수사례들을 접목시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겪었을 수많은 실패사례들로 하여금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살펴보고 변수를 줄여 나가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활기업은 2016년 9월 이든카페 창업과 2015년 9월 행복한가게 분점(대성점) 창업을 통해 2개소가 늘었으며, 2017년 상반기 지정취소로 인해 마을기업은 1개소가 줄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기업 양성과 읍·면단위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구상해 발굴·육성이 절실히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시 대동면 부추가 전국에 ‘농약부추’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작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우선 ‘무농약 재배농가’를 늘려 점진적으로 농약의 사용보다는 유기퇴비를 활용한 퇴비농법으로 전향하여 ‘친환경·유기농’ 부추재배 단지를 마을특화사업으로 조성하여 마을주민들과 공동브랜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추진하여 생산(재배)-가공(포장)-유통(배송)-납품(수출)을 위한 합리적인 유통망 구축과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마을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역공동체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과 공동체 복원·복지에 유익하게 사용되어 집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로드맵은 책상 앞에서는 수월하게 그려지지만, 현실에 부딪혀보면 사실상 현장에서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활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와 전국·광역단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자활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사례가 가장 활발했던 만큼, 지역자활센터에서 배출되는 자활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는지 자문해봅니다.

#### 4. 경영에서 마케팅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금융부채를 늘리거나 고정 지출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만이지만, 모든 직원(또는 조합원)들의 마음과 의지를 한데 모으고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관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법인격 지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관에 명시한 각 종 기준과 조항들을 근거로 '민주와 평등'을 준수 당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많은 기업들은 맞지 않는 옷을 억지스레 끼워 입은 듯 서툴고 불편해 보이기만 합니다.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용지원센터에서 날아오는 등기우편물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근로감독관 앞에 임금을 체불한 악덕 '고용주'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쫓겨난 '근로자'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함께 일해 온 5년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철저히 자기 입장을 변론하고 호소합니다. 6개월을 허비하고 받아가는 돈은 고작 10만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내 말이 법이고, 나만 지키는 원칙'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가 아닙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영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과 더 나은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합당한 대우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고용의 형태가 다소 불안정 하다 보니 계약직 비중이 크거나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초기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운영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자나 특정인에게 행정업무들이 과다하게 집중이 되다보니 개개인의 교육기회는 배제되고, 처우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이직을 고민하게 되며,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행정업무가 마비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제대로 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조직관리 문제는 구성원들이 떠난 뒤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기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수치적 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고용의 질(최저임금 1.5배 이내, 근로자 처우개선)은 중소기업 평균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여전히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결국, 구성원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2)내발적 동기부여'를 통해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선해야 할 과제라 자문해 봅니다.

#### 5. 맺으며

2) 자신의 행동 기점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가진 사람, 타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은 유럽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로선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현행법령의 틀 안에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용하기도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하나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조금만 더 가까이 연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만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김해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첨. 김해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구 분	기 업 명	분 야	대 표	인증(지정)일
예비 사회적 기업 (6)	김해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도·소매	김진영	2015.04.24
	(주)베델장례	장례서비스	최인순	2015.08.08
	(주)굿농농업회사법인	도·소매	민수식	2015.08.08
	주식회사문화와사람들	문화예술	박해규	2016.04.29
	주식회사 활연구소	보호용구	문정곤	2016.04.29
	주식회사 다운환경	청소서비스	이승희	2016.11.24
인증 사회적 기업 (7)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인테리어	오재현	2010.01.21
	(유)김해늘푸른사람들	청소서비스	황영임	2010.01.21
	(유)김해돌봄지원센터	가사간병	백소연	2010.07.30
	김해YMCA 아시아문화센터	기타	최태열	2012.06.22
	유한회사 인제베이커리	제과·제빵	김용미	2013.07.11
	통 주식회사	다문화카페	오미숙	2014.12.16
	(유)행복한가게	재활용품	박형구	2015.03.31
일반 협동 조합 (59)	드론·멀티미디어컨텐츠 협동조합	방송통신 및 서비스	이승렬	2017.06.09
	가온누리 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우빈	2017.05.29
	경남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문화·예술서비스	김세훈	2017.05.04
	김해왕도문화마을협동조합	시설관리 및 서비스	양재만	2017.04.07
	김해의류재활용협동조합	원료재생 및 복원	김수봉	2017.03.20
	김해남산마을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영묵	2017.03.10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최수봉	2017.02.22

가나안협동조합	보건·사회복지	윤용근	2017.02.09
금관주얼리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이진희	2016.09.20
황칠파낙스협동조합	제조업	최정식	2016.09.05
두아채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홍순열	2016.07.01
동부산공예협동조합	제조업	남희숙	2016.06.27
유앤아이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조성문	2016.04.26
수작킴퍼니협동조합	제조업	김중호	2016.03.15
문화공동체 재미난사람들 협동조합	문화·예술 서비스업	김서운	2016.03.14
소중한우리 성교육 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하미숙	2016.03.11
한국아로니아중앙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정규영	2016.01.19
영지발효식품 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경린	2015.12.10
무척산공예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안홍관	2015.10.26
김해도예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이한길	2015.10.19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열발전	김동훈	2015.09.24
웰덴치기공 협동조합	제조업	배종백	2015.09.22
가고파관광 전세버스 협동조합	운수업	김진수	2015.09.22
김해나들가게 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정의철	2015.08.31
자아연토탈미용협동조합	서비스업	이경옥	2015.08.28
우등리무진관광버스 협동조합	운수업	공갑영	2015.08.28
부경관광버스 협동조합	운수업	박병호	2015.08.19
헬스키퍼 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정대열	2015.07.29
김해재활용협동조합	재활용 및 복원업	김자영	2015.04.02
대현테크 협동조합	제조업	김현철	2015.03.27
고담쪽물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광수	2015.02.05
금바다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한승희	2015.01.29
대한민국향토핵심자원협동조합	여가관련 서비스업	조지현	2015.01.26
패션의류소상인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이진우	2015.01.02
가야마중물 협동조합	숙박 및 음식점업	김성철	2014.11.25
김해화훼유통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기수	2014.05.27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	제조업	문기태	2014.05.19
	눈을 사랑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신대철	2014.05.07
	한국뉴스포츠경남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박재현	2014.04.08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제조업	안상국	2014.04.02
	흙사랑 특농 협동조합	유통업	허이주	2014.03.31
	김해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류지원 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최홍구	2014.03.07
	김해청춘멘토협동조합	교육 및 임대업	박창석	2014.03.03
	경남주거복지 협동조합 다함	건설업/도소매	오재현	2014.02.20
	광고디자인협동조합	제조업	박성원	2014.01.27
	태백한우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정중	2014.01.21
	경남한우협동조합	유통업	하태문	2013.11.20
	김해길협동조합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국희	2013.11.15
	마을기업행복한동행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종필	2013.11.07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	건설업	박인완	2013.09.17
	경상남도조경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지상근	2013.07.22
	진영단감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김종열	2013.07.15
	한국엄마학교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윤영희	2013.06.27
	두레실버화협동조합	제조업	김정실	2013.06.24
	의료복지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최종철	2013.06.13
	한국정밀모터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이호길	2013.05.01
	산청공예마을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차정석	2013.04.15
	장유부동산협동조합	부동산/임대업	편수일	2013.02.28
	경남3355소비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하유춘	2013.01.23
사회적 협동 조합 (4)	꿈튼튼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김미정	2016.12.12
	참바른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김경미	2016.10.27
	고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김동필	2016.01.28
	회현마을공동체 회현당 사회적협동조합	제조 및 서비스업	안진공	2015.11.03

마을 기업 (2)	마을기업 행복한동행 협동조합	재활용	이남우	2013.11.27
	김해시지역공동체활성화 교류지원협동조합	도소매/유통업	최홍구	2014.06.12
자활 기업 (9)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인테리어/주거	오재현	2004.10.29
	유한회사 인제베이커리	제과/제빵	김용미	2007.02.22
	유한회사 김해늘푸른사람들	청소/방역서비스	황영임	2006.07.06
	유한회사 행복한가게(삼정점)	재활용/도소매	박형구	2011.09.29
	유한회사 행복한가게(대성점)	재활용/도소매	김선목	2015.09.24
	김해방문요양조합	노인요양서비스	백소연	2008.07.22
	김해방문목욕조합	노인요양서비스	백소연	2009.10.06
	김해간병조합	간병서비스	백소연	2011.09.29
	이든카페(목재체험장점)	커피/서비스업	허서연	2016.09.30